

깊은 이야기와 울림...주옥같은 명곡들

한국 가곡 탄생 100주년

〈상〉 '봉선화'에서 시작된 100년 역사
 흥남파 '봉선화' 한국 최초 가곡
 '고향생각' '성불사의 밤' 등 인기
 '광주·전남 우리가곡부르기' 모임
 12년간 132차례 공연...시 낭송
 "함께 부를 수 있는 가곡 탄생 희망"



홍남파

울밑에선 봉선화야/
 네모양이 처량하다/
 길고긴날 여름철에/
 아름답게 꽃필적에/
 어여쁘신 아가씨들/
 너를만져 놀았도다...
 북풍환설 찬바람에/
 네형체가 없어져도/
 평화로운 꿈꾸는/
 너의흔이 예있나니/
 화창스런 봄바람에/
 환생키를 바라노라
 ('봉선화' 중)

올해는한국가곡이탄생한지 100주년이 되는 해다. 한국 최초의 가곡으로 알려진 '봉선화'는 지금도 불리워지며, 흥남파의 '옛동산에 올라', 이은상의 '고향생각' 등도 유명하다. 최근에는 작곡가 윤학준·최진·이원주·김주영·김효근 등이 만든 곡들이 소프라노, 테너 등에 의해 불려지고 있으며, 광주에서는 12년째 우리가곡부르기 모임이 열리는 등 100년이 흐른 지금도 한국가곡에 대한 관심과 애정은 적지않다.



리가곡부르기는 지난 13일 광주시 동명동의 한 카페에서가곡부르기 시간을 가졌다. 이날 찾은 모임에서는 '가시꽃 사랑', '어느 시인에게', '그리운 마음', '별이 내리는강 언덕', '떠날 줄 알게 하소서' 등 작곡가 김동환의 곡을 불렀으며, 이날의 시로는 남정림의 '11월의 나무'를 낭송했다.

'봉선화'는 일제강점기 암울한 시대인 1920년대에 탄생했다. 이 곡을 작곡한 시인 김형준은 집안의 저가봉선화를 보며 일제치하에서 핍박받는 우리 민족을 떠올렸고, 슬픔과 고뇌를 담아 작사를 했다. 여기에 흥남파가 곡을 붙여 탄생한 것이 '봉선화'다. 당시 문필가로도 활동했던 흥남파는 자신의 단편소설집 '처녀의 혼' 첫 장에 실은 곡 '애수(哀愁)'를 '봉선화'에 붙였다.

제목처럼 단조 선율이 서정적이며 처량한 이 곡은 소프라노 김천애가 부르면서 전국 방방곡곡에 울려 퍼졌고, 바로 한국가곡의 시발점이 되었다. 그 뒤 흥남파는 '금강에 살으리랴다', '봄치녀', '사공의 노래', '사랑', '성불사의 밤', '정안사' 등을 발표하며 우리 나라 가곡의 길을 개척했다.

이렇게 탄생한 가곡을 부르며 그 의미를 되새기고, 감동을 나누는 모임이 있어 눈길을 끈다. 바로 '광주·전남 우리가곡부르기' 모임이다. '광주·전남 우리가곡부르기'는 2008년 인터넷 가곡 사이트 '내 마음의 노래'를 통해 인연을 맺은 이들이 꾸렸다. 이들은 모임 때마다 학창시절 교과서에서 배웠던 추억의 노래를 함께 부르고, 우리말의 보물창고인 아름다운 '시'에 가락을 붙인 곡들을 배우는 시간을 갖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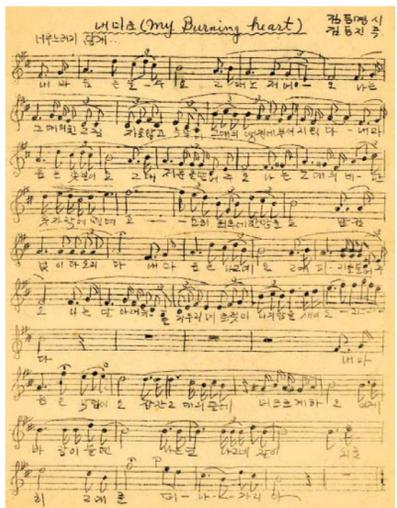
또 매달 시를 선정해 낭송하며, 회원들이 직접 무대에 올라 자신의 기량을 뽐내기도 한다. 지금까지 모두 132차례 공연을 선보인 '광주·전남 우

곡가 김동환의 곡을 불렀으며, 이날의 시로는 남정림의 '11월의 나무'를 낭송했다.

이날 추억의 노래로 '오빠 생각', '옛 동산 올라', '고향생각', '고향 그리워'를 함께 불렀으며, '보고싶은 얼굴'과 '낙엽' 등도 들려줬다.

회원들은 또 사랑의 노래로 '그리운 마음'을 선사했으며 마지막으로 박목월의 시에 김성태가 곡을 붙인 '이별의 노래'를 부르며 공연을 마무리했다.

이들은 올해 한국가곡 탄생 100년을 계기로 앞으로 10년·20년 꾸준히 우리가곡을 함께 부르며 감동과, 애환, 정서를 나눌 계획이다. 황선숙 광주·전남 우리가곡부르기 회장은 "민족의 고유한 정서를 담은 가곡을 가진 나라는 많지 않다"며 "언젠가부터 가곡을 부르지 않아 사라진 현실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 "광주·전남 우리가곡부르기" 모임을 통해 꾸준히 가곡을 부를 예정이며 앞으로 전국민이 함께 공감하며 부를 수 있는 가곡이 탄생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전재제 기자 ee6621@kwangju.co.kr



작곡가 김동진(위)과 그가 작곡한 '내 마음' 자필 악보.



나의 노래 (나팔꽃)

나의 노래 나의 그림 살아가는 이야기

서양화가 임근재 개인전, 17~26일 예술공간 집

서양화가 임근재 작가 개인전이 17일부터 오는 26일까지 예술공간 집(동구 제봉로 158번길 11-5)에서 열린다.

'나의 노래(나의 그림)'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시에서 임 작가는 장미, 나팔꽃, 소나무 등을 소재로 작업한 작품을 선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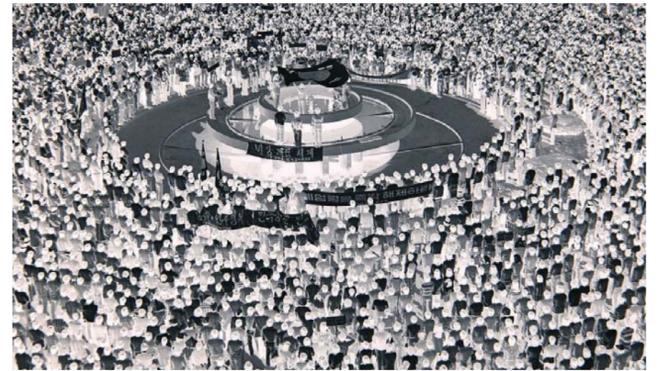
임 작가는 가슴이 리듬으로 자신의 삶을 노래하듯, 자신은 그림으로 살아가는 이야기를 담아내고자 말한다. 김광석이나 산울림의 서정적인 곡이 마음을 움직인다는 그는 거창한 이야기보다는 평범한 도시민들의 마음과 생각을 화폭에 담으려 했다. 그런 그가 선택한 소재는 '아침의 영광'이라는 뜻으로 어릴 적 동심을 자극하던 나팔꽃과 주변을 환하게 만들어준 다채로운 색깔의 장미다. 또 비가 오나 눈이 오

나 항상 그 자리를 지키는 소나무의 늠름함도 함께 그렸다.

봉우리를 맺고 있거나 활짝 핀 장미는 화사한 분위기를 선사하며 자연풍경과 어울려진 나팔꽃의 모습을 그려낸 '나의 노래(꿈)'는 색다른 느낌을 전한다. 전시에서는 우화작품 이외에도 여성 누드와 함께 늘상 작업해 오던, 악기를 연주하는 여성들의 모습을 담은 수채화도 함께 선보인다.

조선대 미술대학 회화과와 동 대학 교육대학원을 졸업한 임 작가는 광주시미술대전에서 대상을 수상했으며 현재 대한민국미술대전과 광주시미술대전 운영위원 및 심사위원으로 활동중이다. 무등회, 1982회, 선과색 회원이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80년대를 융합 영상으로 만나다

ACC, 28일 '등글고 등글게 Round and Around' 상영

5·18광주민주화운동부터 1988년 서울 올림픽까지 시대상을 엿볼 수 있는 융합 영상이 공개될 예정이다. 이번 융합영상은 공간과 시간 경계를 넘어 현대사가 어떻게 기록되고 해석되는지 조망하는 기회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전당장 직무대리 박태영)과 아시아문화원(ACI·원장 이기표)은 한국영상자료원(원장 주진숙)과 현대사를 조망하는 '등글고 등글게 Round and Around'를 상영한다. <사진>

오는 28일(오전 11시, 오후 3시·7시) ACC 예술극장에서 열리는 이번 상영회는 5·18민주화운동 40주년 의미를 되새기고, ACC 개관 5주년을 기념해 기관 간 협력 프로젝트 일환으로 진행된다. 특히 80년대

광주항쟁과 서울올림픽 등 한국사회가 지나온 역사의 변곡점들이 담겨 있어 의미가 크다.

ACC는 극장과 전시장을 확장시킨 블랙박스 공간에서 당시 모습들을 보여주는 데 초점을 맞췄다. 관객은 옛 광주국군병원과 옛 광주교도소, 잠실 올림픽경기장 등 역사적 공간을 만나 현대사의 극적인 순간을 체험할 수 있다.

이번 프로젝트 영상은 다음달 5일 서울 한국영상자료원 시네마테크KOFA에서도 오후 2시와 6시 총 2차례 만날 수 있다. 관람은 무료이며 ACC와 한국영상자료원 누리집을 통해 사전 관람 신청을 받는다. 문의 062-601-4432.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광주·전남 우리가곡부르기' 공연이 지난 13일 광주시 동구 동명동의 한 카페에서 열렸다.

광주동구청소년수련관 20일까지 '예술과 함께하는 참좋은 인연展'

광주동구청소년수련관(관장 소운스님, 관음사 주지)은 오는 20일까지 1층 로비에서 '예술과 함께하는 참좋은 인연展(사진)'을 개최한다.

지난 11일부터 진행중인 이번 전시는 청소년작가와 중견작가의 멘토·멘티 만남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청소년 문화예술 꿈키움 프로젝트' 이름으로 진행되며, 어려운 환경에서 예술의 꿈을 키우려는 청소년 작가와 이들에게 멘토 역할을 하는 중견작가들이 참여했다.

전시회는 김영태, 김용태, 김정연, 김현우, 오기배, 윤순홍, 이동진, 이인호, 임현채, 최운아, 한민정, 탁정은 등 지역에서 활동하는 중견 작가 12명과 17명의 청소년 작가들이 주인공이다. 전시장에는 모두 50여 점의 작품이 걸렸다.

한편 광주동구청소년수련관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를 맞아 유튜브를 기반으로 하는 유스퀀TV, 진로 토크콘서트 등 비대면 프로그램과 체육활동 등을 지원하고 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LOTTE CINEMA | 중장로관

단체 및 대관문의 1544-8855

1관	도굴
2관	도굴
3관	도굴
4관	내가 죽던 날, 예비규환
5관	삼진그룹 영어토박반
6관	삼진그룹 영어토박반
9관	내가 죽던 날
7관 씨네커튼	내가 죽던 날, 미스터트롯: 더 무비 예비규환, 탐보
8관 씨네커튼	킹덤 오브 헤븐: 디렉터스 컷

광주문화예술회관 문의 062)613-8353

GAC작가공모 전시
Relation connection 나수빈 개인전
 2020. 11.5(목) ~ 11.29(일)
 광주문화예술회관 갤러리

GAC기획공연 FOCUS
연극 청문래어도망친 100세 노인
 2020. 11.18(수) ~ 19(목) 19:30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

광주시립오페라단 제6회 정기공연
푸치니, 오페라 '라보엠'
 2020. 11.30(월) ~ 12.1(화) 19:30
 광주문화예술회관 대극장